



주말 가을비...내주 '입동 추위'

주말인 4일부터 광주·전남에 가을비가 내린다. 비는 일요일인 5일까지 내리다 차차 개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입동(立冬)인 7일을 전후로 광주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부터 천동·번개를 동반한 5~10mm의 비(강수확률 40%)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주말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상엔 안개가 절개 끼는 곳이 많고 고과도 2~3m로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비가 그친 뒤 광주는 5일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6도 수준을 보이다가 6일 아침에는 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산간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감기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

해일 동반 '슈퍼급 태풍'

2100년 9월 한반도 강타

부경대 연구팀 컴퓨터 시뮬레이션 성공

"2100년 9월 초속 67m의 강풍과 1천mm의 폭우, 거대한 해일을 동반한 '슈퍼급 태풍'이 한반도를 치나간다"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오재효 교수팀은 2100년 한반도를 내습하는 초특급 태풍의 강도를 파악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오 교수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2003년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1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매미'가 2100년 유사한 경로로 한반도를 치나간다면 태풍의 중심기압이 최고 22hPa(헥토파스칼) 이상 강화되면서 태풍의 위험 반경이 넓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 이 태풍이 상륙할 때 2003년 '매미' 때보다 최고 풍속이 초속 10m 이상 증가하고 시간당 30mm의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100년 태풍의 최대풍속은 초속 67m 이상이고 강수량은 1천mm가 넘을 것이다. 거대한 해일이 해안과 밀려들 것이라고 오 교수팀은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치는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간회'(IPCC)에서 향후 100년간의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변화에 대해 분석한 비관적 시나리오(해수온도 5도 상승)를 근거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래의 태풍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 통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더라도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대서 박사과정 밟는 中 특수부 검사 현송학씨

"선진 법학 배워 고향 조선족 도울 것"

조선족 출신...옌볜 공무원 범죄 담당

한국 '벌금형' 연구... "로스쿨 부러워"



한국 '벌금형' 연구... "로스쿨 부러워"

1920년대까지 함경도에 살다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 사람'. 현씨도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자각하고 있다.

서울 등 다른 대도시를 제쳐놓고 광주를 찾은 것은 지인(知人)들의 조언이 컸다고 한다. 먼저 유학을 한 선배 검사들과 평소 알던 법대 교수들이 조선대를 추천했다.

"중국에는 '1개 정부 2개 조직'이란 말이 있어요. 법원과 검찰은 정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독립체라는 뜻이죠. 법원·검찰이 법무부 소속인 한국과는 좀 달라요."

현씨는 중국 법원과 검찰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처럼 법원과 검찰, 경찰이 '힘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권력 배분이 잘 돼 있다는 것이다. 현씨는 그러나 한국이 도입 예정인 '로스쿨(Law School) 제도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박사과정 과목을 모두 이수한 현씨는 논문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벌금형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가 필수적이라 한다.

지난 2년간 학기 중에는 한국의 '학생', 방학 때는 중국의 '검사'라는 1인2역을 했던 현씨. 외롭기도 하고 눈코 뜰 새 바쁜 나날이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씨는 "조상의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해서 흐뭇하다"면서 "한국에서 배운 지식은 고향의 조선족들을 돋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경기자 jhlim@kwangju.co.kr

나우침
김종득 6967



전완준 회순군수 입건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지난 10·25 대보선 당시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완준 회순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선거운동 개시일 3일 전인 지난달 9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공천에 반대해 민주당을 탈당한 각 면 단위 선거운동 책임자 20여 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협의를 받고 있다.

면 단위 선거운동 책임자들은 앞서 같은 달 14일에도 선거사무실에서 도입을 가졌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전 군수의 지지자인 최모(61)씨로부터 200만 원 씩을 건네받았었다. 당시 최씨는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됐다.

전 군수는 경찰에서 "도입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를 부탁한 적은 없고 참석자들이나 금품을 주고 받은 사람 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금품수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역대 최고 추징금 17조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3일 20조원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21조4천484억원이 선고됐던 추징금은 항소심 선고일(선고 직전일까지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떨어진 점이 감안돼 1심 선고 당시보다 줄어든 17조9천253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17조여원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역대 최대다.

/연합뉴스



"전철히 모시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운송조합과 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종사자 500여 명은 3일 오전 7시30분부터 동구 금남로 광주 YMCA 앞,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10곳에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는 '서비스 향상 다짐 캠페인'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가막만 양식 굴 절반 폐사

바닷물 고수온 영향... 출하도 12월로 늦어질 듯

굴 수확철을 앞두고 여수 가막만 해역의 양식 굴 폐사가 급속히 진행돼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굴 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여수시 돌산읍·화양면 일대 가막만 어장(수하식)에서 자라고 있는 굴이 폐사하기 시작, 3일 현재 전체 수하량의 절반 정도가 폐사했다는 것이다.

폐사에 따라 비단도가 좋은 굴의 경우

해는 12월이 넘어서야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청 관계자는 "양식 굴의 20~30%는 자연 폐사하지만 절반 가까이 폐사된 적은 거의 없다"며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 보상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성훈기자 kangsw@

...수하식(垂下式) 양식 = 펫목·뜸 위에 굴·미역·담치 등 양식대상물의 씨를 붙인 부착기를 줄로 매어 물속에 드리워서 기르는 것.

우애 좋던 자매 죽음까지 한 날에...

동생 교통사고 소식 듣자 80대 언니 숨져

동생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숨졌다. 평소 우애가 남달랐던 이들 자매는 모두 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나란히 숨을 거뒀다.

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모(여·81)씨가 자신의 집 앞 안방에서 정신을 잃은 채 신을 중인 것을 조카가 발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령인 김씨는 이날 오후 여동생이 교

통사고 후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여동생(71)은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건너다 광주32미94XX 버스로 승용차(운전자 손모·여·44)씨의 차에 치여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7시20분께 언니의 뒤를 따라갔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 중 절반인 8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대부분

이 즉석 포장제품(7개 제품)이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백화점 제품 3개, 재래시장 제품이 4개, 대형할인점 제품 1개였다.

일반세균 검출 시험에서는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g당 1만 미리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에서는 무려 2만2천 미리의 세균이 나왔다. 절반류의 일반세균수에 대한 규격 기준은 아직 국내에 없다.

/연합뉴스

시중 판매 새우젓 제품 절반 이상 대장균 검출

이 즉석 포장제품(7개 제품)이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백화점 제품 3개, 재래시장 제품이 4개, 대형할인점 제품 1개였다.

일반세균 검출 시험에서는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g당 1만 미리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됐으며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에서는 무려 2만2천 미리의 세균이 나왔다. 절반류의 일반세균수에 대한 규격 기준은 아직 국내에 없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